16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 F1(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결승전에서 머신들이 곡선 주로를 달리며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주에서는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1위를 차지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F1 열기 넘어선 K-팝 열풍

외국인 등 2만5000여 팬들 함께 즐겼다

영암에 울려 퍼진 K-팝(POP)의 한류 열풍이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열기를 넘어섰다.

지난 15일 영암 삼호읍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 상설 패독 앞에 마련된 공연장에서는 소녀시대, 티아라, 슈퍼주니어, 다비치, 포미닛 등 17개 팀이 출연, 2시간여 동안 K팝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장은 이날 새벽부터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2만5000여명의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일부 관객들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새벽 2시부터 돗자리를 깔고 밤을 지새웠다. 특히 최근 K팝 한류 열풍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일본, 중국 등 외국 관객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탤런트 류시원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300여명의 일본 팬들은 류시원의 레이싱을 관람한 후 단체로 공연장을 찾아 K팝 공연을 즐겼다.

이날 오후 2~3시 F1 코리아 그랑프리 예선 직후에는 1만여명의 시민들이 공연장으로 몰리면서 K팝 공연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하지만, F1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일부 시민들이 K팝 공연을 즐기기 위해 F1 예선 경기를 포기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소녀시대를 보기 위해 새벽 4시에 도착했다는 권혜숙(여·21)씨는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 나왔는데 나보다 앞서온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놀랐다"며 "F1 대회도 보고 싶었지만 공연과 시간이 겹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경기장을 찾은 김영준(26)씨도 "F1팬으로서 경기를 보고 싶기는 하지만 F1 예선 시간과 K팝 공연이 겹쳐 경기 관람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암=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예선이 열린 지난 15일 영암군 삼호읍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 상설 패독 앞에서 국내 인기가수들이 참여한 K-POP 공연이 열렸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회도로 교통분산 큰 혼잡 없었다

〈무안군 삼향면~영암군 삼호읍 15.2㎞〉

'스피드 축제' 분야별 결산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대회운영도 크게 개선

한옥시설 '영산재' 호평… 쉼터는 여전히 부족

지구촌 최대의 '스피드 축제'가 16만 관중 몰이에 성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운영 방침의 잦은 변경으로 일부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경주장 건설마저 제 때 이뤄지지 못한데다, 빗속에서 펼쳐지면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해 첫 대회에 견줘 성공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교통 대책=올해 가장 눈에 띈 것은 원활해진 교통 흐름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제 이벤트인 F1을 개최하면서 1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감안한 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주차장과 경주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전용차로 및 승강장 없이 운영하면서 승용차와 뒤섞여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고 경주장 진입 도로도 1곳에 불과해 경기 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우선, 수도권과 광주 방면에서 오는 관람객들을 고려해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톨게이트를 지난 뒤 죽림JC에서 서영암IC까지 이어진 국도대체 우회도로(무안군 삼향면 맥포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간 15.2㎞)와 국지도 49호선을 연결, 경주장 진입을 한결 쉽게 했다.

목포시내와 영산강 하구언을 통과하지 않고 무안 남악신도시를 거쳐 바로 경주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교통을 분산시킨 게 톡톡히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11만명이 넘는 관람석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1만3000면)을 고려해 일부 공간(5500면)만 일반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4곳의 환승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 경주장 입구 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순환버스로 스탠드까지 이동해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한 것과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한 점도 체증을 막는데 한몫을 했다.

환승주차장 셔틀버스도 5분마다 운영돼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고, 관람객들도 줄지어 차례대로 승차하는 등 질서 의식도 돋보였다.

반면, 충분한 사전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환승주차장도 주차권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아파트단지 등에 주차한 뒤 도보로 이동한 관람객들도 적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혼란스럽게 자주 바뀐 '경주장 내 주차 방침'이나 포장되지 않은 인도, 메인 그랜드스탠드 입구의 혼잡함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회 운영도 개선=지난해 낙제점을 받았던 대회 운영도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들과 보안요원들로 이뤄진 대회 운영진 상당수가 사전 충분한 교육으로 적극적으로 관람객들을 안내했고 2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불상사가 우려됐던 'K-팝 콘서트'도 적절한 대처로 무리없게 진행됐다.

하지만, 운영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일부 교통·검표 운영요원들의 부적절한 안내로 VIP 관람객이 메인그랜드 스탠드와 패독클럽을 왔다갔다 하는가 하면, F1 대회 일정과 K팝 공연일정을 방송사 위주로 맞추면서 비싼 관람료를 지불한 관람객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다니게 만든 점도 아쉬웠다.

◇'영산재' 인기… 편의시설 보완해야=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했던 편의시설과 논란이 일었던 숙박시설도 대체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90여개에 이르는 식·음료 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크게 확충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일부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모두 떨어져 팔지 못하는가 하면, 여전히 앉아서 쉴만한 쉼터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시설도 무난했다. 최근 준공된 '영산호 국민관광단지' 내 한옥호텔 '영산재(榮山齋)'의 경우 대회 기간인 14·15일 한옥 21개 31실이 가득 차는 등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기간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가 각각 5개(하늘채·노을채·달빛채·가람채 등)의 한옥에서 머물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예약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임명혁씨〉

전문 파워블러거들이 본 영암대회

다이내믹 서킷 작전 변화 많아 큰 재미

"두번째 F1 대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년과 그 이후를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린 영암 삼호읍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을 찾은 F1 전문 파워 블로거들은 이번 F1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경주장을 찾아 관전포인트와 경기결과, 대회운영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블로그에 올리며 F1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케로'라는 블로그명으로 '케로군의 불(火)로그'를 운영중인 SBS ESPN 윤재수(40) 해설위원은 "올해는 서킷의 완성도나 편의시설 등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치러지는 F1 대회와 비교해도 크게 손색 없었다"고 말했다.

'Haro'라는 블로그명으로 'F1 by Haro'를 운영중인 임명혁(34)씨는 "영암 서킷은 고속, 중속, 저속이 혼합돼있고 트랙과 관람석도 가까워 다른 대회보다 더 흥미로운 경기를 선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모터스포츠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영암과 한국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영암=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도대체 말이 통해야 대꾸를 하지?!